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관광관련 전공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윤 선 영**

목 차

요약	3.3 자료분석 방법
1. 서론	4. 연구결과
2. 이론적 배경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2 대학생활 적응	4.3 상관관계분석
2.3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4.4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2.4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4.5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3. 연구방법	4.6 가설검증
3.1 연구모형	5. 결론
3.2 설문문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경기도 소재 4개의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타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건강한 유학생들의 지킴 마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언어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에 부분적으로 정(+)의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예방 및 근거와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 대학의 교육서비스 품질 개선 및 다문화시대에 국내 소수집단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표제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접수일(2015년 8월 27일), 수정일(1차: 2015년 9월 7일), 게재확정일(2015년 9월 23일)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관광이벤트학과 교수, ysy222@kyonggi.ac.kr

1. 서론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경제적 영역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각 나라 간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의 교류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인적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 있어서도 여행, 이민, 유학 및 연수, 해외 파견 근무, 국제결혼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수도 날로 증가되고 있다. 2013년 3월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86,519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57,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3) 앞으로도 유학생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차원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유학생들은 본인들이 자란 곳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와 언어, 음식,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유학생이 적응하면서 겪는 문제들로는 외로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따르는 학업문제, 문화,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언어문제, 차별, 문화적 비합리성, 가족이나 문화적 자부심과 같은 보호가치들로부터의 분리 등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 때문에 괴로워하며 건강저하, 좌절,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다(Michiko Yano, 2002). 또한 두려움과 불안정감, 향수병, 집중력 저하와 학업부진,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환을 겪을 수도 있다(Michiko Yano, 2002).

Williams and Berry(1991)는 타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및 절망감, 정체성 혼란, 신체적 증상과 같은 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흔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정의되는 이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심리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유학은 유학생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는 학업의 증진, 새로운 문화의 탐색 및 도전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공적인 결실과는 달리 그 과정상에는 새로운 문화적응문제, 학교문제, 대인관계 문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등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자신이 목적으로 한 학업수행과 졸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의내용의 이해 부족, 연구 수행과 발표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심리적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숙, 2009).

그러나 일부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의 유치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강윤구, 2007),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제도적 장치가 많이 미흡하여 학업부진, 중도이탈, 불법취업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오는 마케팅이 중요한 것만큼 이들이 본국에서와 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유학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적인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1차적 기관이다. 유학생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체계는 대학생활이고 타국에서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유학생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접성이 뛰어난 곳도 대학이며 그들의 적응을 위한 예방 체계 마련 및 사후 개입이 가장 용이한 곳 역시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 내 각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변인으로 언급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McGinley 등(2010)은 멕시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다른 사람을 돕거나 협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정아, 김인경(2011)의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연구에서는 여학생인 경우, 유학만족도가 낮은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 주거형태가 기숙사가 아닌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낮은 경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변인으로 언급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와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완충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교육, 복지, 간호학, 심리학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살펴보거나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하정희, 2008; Berry, 2005; Pan et al., 2008).

백지숙(2011)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하였으며,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을 다룬 이채식(2012)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지각된 차별, 두려움, 적대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다룬 박은미, 황병의, 정태연(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문화수용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혁심(2005)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그다지 많이 겪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위의 언급을 기초로 하여 국내 경기도 소재 대학 중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4개의 대학을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 기준 1200만 명을 돌파하고 2020년 2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5년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관광목적지로서의 가능성과 한류 콘텐츠 등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 유학을 하는 관광 관련 전공 유학생의 양적 증가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 이에 관광 관련 전공은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가 요구되고 관광시장의 확대로 향후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자국이나 한국에 취업 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겪게 되는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재하거나 완화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양적으로 유지해 온 국내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전략은 교육서비스 혁신이라는 질적인 변화로 모색되어야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지하는 한국 대학의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만족 및 대학생활의 질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된다. 개념자체를 보면 접촉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소수인 이민자가 주류인 수용국민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Berry, 2005).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스트레스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그 결과로 생활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말하자면, 주거환경 및 주변 환경, 음식, 경제, 언어, 사회제도, 대인관계 및 정서나 행동을 포함한 심리적 차원 등에서 변화를 겪을 때 일어난다(Berry et al., 1988). 이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보았지만 Nwadiord and McAdoo(1996)는 구체적으로 주가 되는 문화와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문화적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이나 사회가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한쪽이나 양쪽 집단 모두 본래 문화패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타문화로 이주한 유학생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 그리고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 등으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Yang, 2005).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ori, 2000).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Sandhu Asrabadi(1994)는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의 남녀 유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

스적 사건을 개인이 평가한 결과로 나타난 스트레스의 영향을 측정한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움, 두려움, 문화충격 스트레스, 죄책감 등 7개의 하위요소를 가진다고 하였다.

Hovey and Magana(2000)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스트레스원(stressor)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나타난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으로는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외로움 등이 있다.

Gil(1994)은 언어 문제, 차별감, 문화적 비합리성, 가족이나 문화적 자부심과 같은 보호, 가치들로부터 분리 등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Greenland and Brown(2005)은 영국에 유학하는 일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어능력, 문화적 거리감, 불안을 제시하였다.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모국을 떠나 유학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외국 유학생들은 현재 소속된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최송미, 2003).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모국의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충격의 대안적 용어이긴 하지만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인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Berry and Kim, 1988).

2.2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의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이 곧 적응의 성공여부였으나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적응에 있어 대인관계나 심리·정서적 건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대학생활적응의

개념도 학습은 물론 심리·사회적인 측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 내에서 학업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소속감을 갖는 것이다(Baker and Siryk, 1984). 그들은 개인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학생활 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적 적응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학업적 적응이란 대학의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 학업 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가 있는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와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정서적 적응은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애정과 친밀함, 신뢰와 이해 같은 감정적 자원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넷째, 대학 환경적 적응이란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학업에 대한 몰입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처럼 국내 대학생에게도 대학생활 적응은 중요한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반적인 대학적응 문제 이외에 낮은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백지숙, 2011).

하정희(2008)는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한국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 중, 중국유학생들은 학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생활 적응관련 요인으로

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으로 성별, 학력, 종교, 주관적 경제력, 전공 만족도, 성격특성(노충래, 2002; 황해연, 2007; Zhang, 2005)과 사회·심리적 측면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가족 기능, 대인관계, 적응유연성, 대처전략(림금란, 2011; 서지연, 2007; 황나리, 2011) 등이 있다. 실제로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본 서선자(2012)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정희(2009), 손로(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자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문화와 습관, 가치관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체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당면하는 최우선의 과업은 학점관리와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교우관계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3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로 Poyrazli-Kavanaugh-Baker-Al-Timimi(2004)는 미국 대학의 재학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하고 있고 Thomas-Choi(2006)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울이나, 불안, 초조함, 식욕상실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 시켜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박태호(2000)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즉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질 그리고 보조

서비스 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역시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문화와 습관, 가치관 등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조력체계가 아직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권혜진(2007)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학교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유경(2008)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재한 몽골 유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재한 몽골 유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보여주었고 김귀성과 황지인(2009)은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 학생들이 이질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다고 하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주동범과 김향화(2013)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2.4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스트레스 모델에서 완충효과로 기대되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속성으로 지지원인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데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사람들과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Cohen and Hoverman, 1983), 삶의 전환기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정신적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회적 결속 관

계 안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애정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을 통하여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Cui et al., 2005).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 유형은 사회적 지지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지지 활동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정서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어 그 자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로서 존중감, 신뢰, 애정, 경청, 관심, 친밀감의 제공을 들 수 있다. 둘째, 평가적 지지는 개인에게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 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확인, 피드백, 수용, 긍정적 자기평가, 사회적 비교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써 충고, 제안, 정보, 지시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로서 현물, 현금, 노동력, 시간, 환경의 개선 등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박지원(1985) 역시 사회적 지지의 형태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차원의 구성체로 이해된다.

유학생들은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였고 필요한 수준과 실제 지지를 받은 양 사이의 차이는 유학생의 만족이나 심리적인 질병과 상관이 있었다(Ong, 2000). 특히 유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로 자국의 유학생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관계망은 상호간에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이 되며 한국인 친구나 교수의 정보적 지지는 학업 적응과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사회

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매커니즘으로써 사회적 통합,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상호작용 등 사회관계의 여러 측면을 의미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House and Kahn, 1985).

학생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개인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스트레스 강도를 완화시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학습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과 자아효능감등을 발달시킬 수 있고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Kahn and Husain(2010)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심리적 강점과 주관적인 안녕에 대한 매개 및 조절변수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가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유학생들이 주변 한국인 학생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거나 유학생에게 지지가 될 만한 사회적 관계망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훨씬 감소한다고 하였다(Zhang,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실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등의 관련변인 및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Thomas and Choi(2006)도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조직 활동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였고 나동석 등(2010)은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능력에 조절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oyrazli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는 유학생들의 학업과 그 밖의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경기도 소재 4개의 대학에서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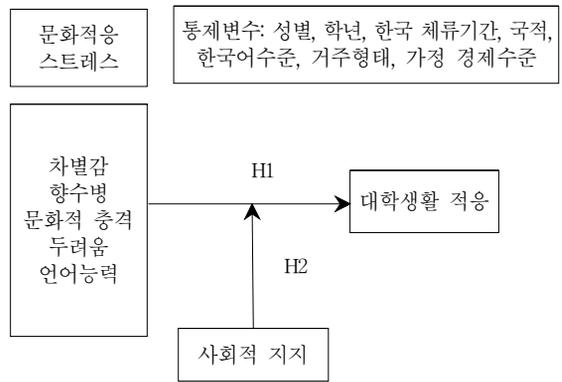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Figure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사이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향수병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충격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두려움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5: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사회적 지지는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 영향관계를 정(+)으로 조절할 것이다.

3.2 설문지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문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국의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측정문항은 Sandhu and Asrabadi(1994)가 고안한 국제학생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와 Hovey and Magana(2000)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측정항목은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충격, 두려움, 언어능력으로 총 5개의 요인,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학업과 관련된 환경에 대처하는 학업적 적응,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의 사회적 적응, 신체적이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정서적 적응,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환경적 적응을 의미하며 Baker and Siryk(1989)에 의해 개발되어진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단일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제공받는 지지를 의미하며 House(1981)의 사회적 지지 측정항목과 장혁심(2005)이 분류한 하위요소를 수정·보완한 항목으로 측정항목은 교수/선·후배/친구에게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로 단일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성별(남자, 여자),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국 체류기간(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국적(아시아, 미주 및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한국어 수준(잘함, 보통, 못함), 거주형태(기숙사, 자취 및 하숙, 친척, 친구 및 기타), 가정경제수준(상, 중, 하)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여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scale)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한 설문지의 수정을 통하여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국내 경기도 소재 4개의 대학에 재학하는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이 생활회화 수준 이상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75부를 배포하였고 250부를 회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설명이 이루어졌다. 조사된 설문은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표본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한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를 통해 각 문항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구하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인식하는 각 변수들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성별, 학력, 한국 체류기간, 국적, 한국어 수준, 거주형태, 가정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낼 때 사용하게 되는데, 요인추출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해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였다. 요인의 추출과정에서는 고유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1보다 큰 것들을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계수에 의한 내적 일관성 검증을 하였다. 표 2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75.767%,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값은 차별감 .728, 향수병 .754, 두려움 .721, 문화적 충격 .826, 언어능력 .702를 나타내었고 KMO(Kaiser-Meyer-Olkin)값은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 1. The Demographic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02	40.8
	여자	148	59.2
학년	1학년	32	12.8
	2학년	96	38.4
	3학년	88	35.2
	4학년	34	13.6
한국 체류기간	1년 미만	51	20.4
	1년~3년 미만	124	49.6
	3년 이상	75	30.0
국적	아시아	203	81.2
	미주 및 유럽	26	10.4
	오세아니아	14	5.6
	아프리카	7	2.8
한국어 수준	잘함	42	16.8
	보통	123	49.2
	못함	85	34.0
거주형태	기숙사	131	52.4
	자취 및 하숙	92	36.8
	친척	10	4.0
	친구 및 기타	17	6.8
가정경제 수준	상	47	18.8
	중	185	74.0
	하	18	7.2
합계 = 250명(100.0%)			

.916, Bartlett 구형성 검증 값은 2566.343(p = .000)을 나타내어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분산설명력은 48.542%,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값은 .881을 나타내었고, KMO(Kaiser-Meyer-Olkin)값은 .896, Bartlett 구형성 검증 값은 2246.425(p = .000)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분산설명력은 33.412%,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값은 .761를 나타내었고 KMO(Kaiser-Meyer-Olkin)값은 .715, Bartlett 구형성 검증 값은 1983.274(p = .000)을 나타내어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Tab 2. Explor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요인명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 설명력 (%)	신뢰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감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함	.882	3.075	35.645	.728
		나를 미워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음	.744			
		나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있음	.723			
		다른 행동방식으로 인해 다르게 취급함	.712			
	항수병	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힘	.831	2.784	18.364 (54.009)	.754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느라 힘들	.784			
		가족과 친지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슬픔	.745			
		고향에 대한 그리움	.711			
	두려움	여기는 안전하지 못함	.774	2.214	10.241 (64.250)	.721
		여기 온 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음	.701			
		두려움으로 인한 낮은 자아상 가짐	.689			
	문화적 충격	나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 못함	.799	1.678	8.472 (72.722)	.826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불편함		.782				
나의 나라와 이곳의 문화적 배경 차이로 힘들		.787				
언어능력	스스로 과제하는 것의 어려움	.768	1.218	3.045 (75.767)	.702	
	교수의 강의 이해 어려움	.753				
	한국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695				
대학생활 적응	이 대학의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	.802	3.801	48.542	.881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	.792				
	이 대학과 전공을 결정한 것의 만족	.764				
	교수와 한국친구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724				
사회적 지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줌	.762	3.473	33.412	.761	
	함께 있을 때 친밀감 느낌	.741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줌	.762				
	나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줌	.714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평가해 줌	.694				
	내가 결정을 못 내릴 때 조언해 줌	.687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줌	.734				
	나에게 건전한 충고를 해 줌	.671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 줌	.663				
	어려운 상황일 때 현명한 방안 제시해 줌	.657				
나에게 시간을 내어 상의해 줌	.641					

출처: 문화적응스트레스: KMO = .916, Bartlett 구형성 검증 = 2566.343(p = .000),
 대학생활 적응: KMO = .896, Bartlett 구형성 검증 = 2246.425(p = .000),
 사회적 지지 : KMO = .715 Bartlett 구형성 검증 = 1983.274(p = .000)

표 3. 상관관계분석
Tab. 3.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1. 차별감	1						
2. 향수병	.642**	1					
3. 두려움	.771**	.631**	1				
4. 문화적 충격	.601**	.739**	.584**	1			
5. 언어 능력	.745**	.587**	.736**	.720**	1		
6. 사회적 지지	-.492**	-.358**	-.463**	-.512**	-.363**	1	
7. 대학 생활 적응	-.513**	-.251**	-.394**	-.476**	-.424**	.536**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기술통계분석
Tab. 4.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감	250	1.00	4.67	2.5640	.72588
	향수병	250	1.00	5.00	2.6389	.72240
	두려움	250	1.00	4.31	2.4804	.69252
	문화적 충격	250	1.00	4.00	2.4165	.74995
	언어능력	250	1.00	5.00	2.6027	.79149
	전체	250	1.00	3.91	2.5525	.62168
사회적 지지		250	1.00	4.23	2.7447	.74732
대학생활 적응		250	2.56	4.37	3.1031	.20255

4.3 상관관계분석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간의 관련성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부분의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 요인의 상관계수가 0.9 이하로 나타나고 구성개념 간에 판별타당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Kline, 1998).

4.4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다음은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 및 평균 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최소값이 1

이며 최대값이 3.91이고 평균 2.55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최소값이 1이며 최대값이 4.23이고 평균이 2.74이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은 최소값이 2.56이며 최대값이 4.37이고 평균 3.10이다.

기술통계분석을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향수병과 언어능력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순으로 나타났다.

4.5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Tab 5. Differe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구 분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M	SD	F	M	SD	F
성별	1. 남	2.34	.40	3.125	3.63	.45	.018
	2. 여	2.79	.49		3.52	.41	
학년	1. 1학년	2.38	.50	4.537**	3.77	.45	2.743*
	2. 2학년	2.62	.41		3.58	.44	
	3. 3학년	2.74	.56		3.52	.44	
	4. 4학년	2.50	.46		3.54	.43	
post-hoc(scheffe)		1,3, 2 < 3, 2, 4			4, 3, 2 < 2, 3, 1		
한국 체류 기간	1. 1년 미만	2.43	.36	4.528**	3.51	.41	.332
	2. 1~3년 미만	2.72	.45		3.77	.49	
	3. 3년 이상	2.51	.41		3.58	.45	
post-hoc(scheffe)		1, 3 < 2, 3			ns		
국적	1. 아시아	2.85	.55	.535	3.66	.48	.706
	2. 미주 및 유럽	2.42	.41		3.59	.45	
	3. 오세아니아	2.31	.36		3.54	.43	
	4. 아프리카	2.14	.22		3.31	.38	
post-hoc(scheffe)		ns			ns		
한국어 수준	1. 잘함	2.39	.31	38.874***	3.41	.45	2.754*
	2. 보통	3.43	.36		3.59	.47	
	3. 못함	2.67	.39		3.37	.41	
post-hoc(scheffe)		1, 3 < 1, 2			1 < 2, 3		
거주 형태	1. 기숙사	2.65	.45	.717	3.55	.43	.740
	2. 자취 및 하숙	2.58	.41		3.47	.40	
	3. 친척집	2.47	.39		3.31	.38	
	4. 친구 및 기타	2.38	.32		3.25	.31	
post-hoc(scheffe)		ns			ns		
가정 경제 수준	1. 상	3.41	.44	8.415***	3.72	.45	4.313**
	2. 중	3.74	.48		4.08	.38	
	3. 하	3.82	.42		3.51	.34	
post-hoc(scheffe)		1, 2 < 2, 3			3, 2 < 1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성별, 국적 그리고 거주형태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p < .01)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학년, 4학년 학생보다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p < .05)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대

학생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체류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한국체류기간 1~3년 미만 집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체류기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한국어 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한국어 수준이 보통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수준에 따른 대학생 생활 적응에도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는데 한국어 수준이 보통일수록 대학생 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대학생 생활 적응에도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는데 가정 경제수준이 ‘중’,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대학생 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가설검증

4.6.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모델 1에서는 독립변수로 투입된 7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귀식은 $F = 22.745(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19.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하위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년($t = -.105, p < .05$), 한국체류기간($t = -.246, p < .05$), 한국어 수준($t = .180, p < .01$)으로 대학생 생활 적응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7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통제변수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변수인 차별감, 향수병, 두려움, 문화적 충격, 언어능력을 투입하였다. 모델 2의 회귀식은 $F = 25.325(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23.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면 차별감($t = -2.359, p < .05$), 향수병($t = -4.227, p < .001$), 언어능력($t = -4.583, p < .001$)가 대학생 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 1의 검증
Tab 6. Hypothesis 1 Tests Result

변수	모델 1		모델 2			
	Beta	t	Beta	t	VIF	
통제 변수	성별	.009	.125	-.023	-.214	1.412
	학년	-.204	-.105*	.018	.186	1.115
	한국체류기간	-.246	-.232*	.173	1.620	1.342
	국적	.005	.075	.025	.242	1.421
	한국어 수준	.180	2.312**	.247	2.604*	1.226
	거주형태	-.032	-.457	-.003	-.026	1.274
	가정경제수준	.085	1.241	.031	.186	1.112
독립 변수	차별감			-.181	-2.359*	2.041
	향수병			-.455	-4.227***	1.975
	두려움			.129	1.272	1.631
	문화적 충격			.241	2.075	1.745
	언어능력			-.428	-4.583***	2.012
F	22.745		25.325			
R ² (Adj. R ²)	.243(.192)		.267(.231)			
ΔR ²			Δ.39			

* $p < .05$, ** $p < .01$, *** $p < .001$, $p = .000$.

4.6.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모델 1과 모델 2는 앞서 독립변수의 주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과 결과가 같으며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모델(모델 3)을 추가 분석하였다. 모델 3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급연산을 통해 산출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어 ΔR^2 증감을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항들 중(차별감×사회적

지지), (항수병×사회적지지), (문화적 충격×사회적지지), (언어능력×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정(+)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사회적 지지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얻고 1단계와 2단계(ΔR^2 .22증분), 2단계와 3단계(ΔR^2 .39증분)이 설명된 분산(R^2)의 증감된 값이 F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분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가설 2의 검증
Tab 7. Hypothesis 2 tests result

변수		대학생활 적응					
		모델 1		모델 2		모델 3	
		Beta	t	Beta	t	Beta	t
통제변수	성별	.009	.125	.023	.325	.052	.374
	학년	-.204	-.105*	-.159	-2.013**	-.201	-2.185**
	한국체류기간	-.246	-.232*	-.137	-1.512	-.133	-1.973
	국적	.005	.075	.031	.326	.155	.812
	한국어 수준	.180	2.312**	.212	1.513**	.253	2.012**
	거주형태	-.032	-.457	-.010	-.162	-.102	-1.459
	가정경제수준	.085	1.241	.278	1.546	.340	1.894
독립변수	차별감			-.185	-2.841**	-.197	-2.935**
	항수병			-.218	-3.744**	-.143	-1.572*
	두려움			-.060	1.415	-.198	2.024
	문화적 충격			.052	.194	.182	2.415
	언어능력			-.024	-1.063**	-.151	-1.799*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351	1.227**	.442	2.697**
상호작용효과	차별감×사회적 지지					.171	2.295**
	항수병×사회적 지지					.203	2.466**
	두려움×사회적 지지					-.011	-.170
	문화적 충격×사회적 지지					.341	3.678*
	언어능력×사회적 지지					.207	1.122**
F		22.745		26.219**		29.427**	
R^2 (Adj. R^2)		.243(.192)		.261(.214)		.285(.253)	
ΔR^2				Δ .22		Δ .39	

* $p < .05$, ** $p < .01$, *** $p < .001$, $p = .000$.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경기도 소재 4개 대학의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타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으로서 유학생들의 유치와 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향수병과 언어능력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대상자의 80% 이상이 중국인 학생임을 감안할 때 중국은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으로 그다지 문화적 충격은 덜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인한 관광목적 지로서의 가능성으로 한국에 대한 두려움은 그다지 덜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 및 친지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외로움은 상당히 느끼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어 회화는 보통의 일정 수준 가능하지만 수업 중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는 성별, 국적 그리고 거주형태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학년, 4학년 학생보다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p < .05$)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체류기간이 1~3년 미만 집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체류기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 수준이 보통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경제수준이 '중', '상'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소 중에서 차별감, 향수병, 언어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외국 학생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 따돌림과 같은 현상은 대학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체류기간이 1년~3년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거나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반면에 그로 인하여 그다지 대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이 나 문화적 충격은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관광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중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충격, 언어능력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생활 적응에 정(+)의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냈으나 두려움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궁극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선행연구인 Zhang(2005), Tomas와 Choi(2006), Kahn과 Husain(2010)의 연구결과

를 비롯한 대다수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나 학생회 모임, 수업 중 한국인 학생과의 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고 한국인 학생, 선후배 및 교수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하며 정서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여가 및 관광활동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전공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후 관광 관련 취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한국 사회와 문화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과 친지를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한 슬픔을 더 심화시킨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인해 한국 학생들과의 조 모임(Group meeting)에서 제외되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며 상담소를 포함한 대학 기관에서 각국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존중의 마음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기관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강의를 늘리고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언어지원을 해 준다면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간의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과 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각국의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맨투맨 방식으로 지정된 멘토가 멘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강신청, 도서관 이용 방법, 리포트 작성방법 등은 물론 학교 밖 일상까지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일찍이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을 넓혀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특히 관광관련 전공의 경우, 학과의 특성상 다양한 관광업체의 실습과 관광활동 및 관광관련 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지자 수가 많은 것보다 지지에 대해 질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최태일, 2001; 박윤숙, 윤인진, 2007)는 선행연구처럼 단순한 멘토링이나 프로그램으로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호교류를 통한 질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치유(healing)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대학들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상품들을 개발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경기도 소재 4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관광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므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 외국인 유학생 전체 중 80% 이상이 중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목적과 상황이 진학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소통 문제와 한국문화 속의 대학생활에 다양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의 적응과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지지의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이 중국 유학생들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실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보다는 주로 양적인 접근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을 파악하여 해석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더욱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직접 부딪히고 생활하는 한국 학교생활에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1] 김귀성, 황지인 (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29, 1-25.
- [2] 강윤구 (2007),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준비 안된 학교”, 오마이뉴스
- [3] 김정아, 김인경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2-61.
- [4]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2), 5-32.
- [5] 권혜진 (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나동석, 강석화 (2010),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학연구, 17(7), 21-46.
- [7] 노충래 (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87-120.
- [8] 림금란 (2011), “중국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예측모형”,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박은미, 황병의, 정태연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관련 변인들의 중재효과 검증”, 스트레스 연구학회지, 18(2), 145-152.
- [10] 박은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회지, 41(1), 124-155.
- [11]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박태호 (2000), “대학의 국제화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6.
- [13] 백지숙 (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14] 서선자 (2012),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인간이해, 33(1), 35-47.
- [15] 서지연 (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 (2009),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39(6), 899-910.
- [17] 이채식 (201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21-140.
- [18] 장혁심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주동범, 김향화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20] 최송미 (2003),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1] 최준혁 (2012), “대학교 기숙사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비스연구저널, 2(2).
- [22] 최태일 (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하정희 (2008),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473-496.
- [24] 한유경 (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황나리 (2011),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모형 검증: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적극적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황혜연 (2007),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www.kedi.re.kr.
- [28] 한국관광공사 (2015), “방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www.visitkorea.or.kr.
- [국의 문헌]**
- [29] Baker, R. W. and Siryk, B. (1984), “Measur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30] Berry, J. W. (1994),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 [31] Berry, J. W. and Kim, U. (1988),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697-712.
- [32]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s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 [33] Berry, J. W., Kim, U., and Boski, M.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Newbury, CA: Sage, 207-236.
- [34] Cohen, S. and Hove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35] Coleman, D. and Iso-Ahola, S. E. (1993), “Leisure and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2), 111-128.
- [36] Cui, W. X., Jin, S. J., and Oh, K. S. (2005), “Self-image and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among the Korean-Chine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343-1352.
- [37] Gil, A. G., Vega, W. A., and Dimas, J. M. (1994),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43-54.
- [38] Greenland, K. and Brown, R. (2005), “Acculturation and contact in Japa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Kingdom”,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4), 373-389.
- [39] House, J. S. (1981),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In M. Rosenberg and R. Turner(ed.),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 N.Y.; Basic Books.
- [40] House, J. S. and Kahn, R.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and S. Leonard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Inc, 83-108.
- [41] Hovey, J. D. and Magana, C. G.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 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 19-131.
- [42] Khan, A. and Husain, A. (2010),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positive psychological strengths

-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s*, 102(2), 534-538.
- [43]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44] McGinley, M., Carlo, G., Crockett, L. J., Raffaelli, M., Stone, R. A., and Iturbide, M. I. (2010), “Stress and helping : the relations among acculturative stress, gender and prosocial tendencies in Mexican America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0(1), 34-56.
- [45] Michiko, Yano (2002), “제한 일본 유학생의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Mori, S. (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137-144.
- [47] Nwadiora, E. and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si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 *Adolescence*”, 31(22), 478-490.
- [48] Ong, S. J. (200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ocial support scale for Sojourners”, *The Index of Sojourner Social Support(ISSS)*. University of Singapore.
- [49] Pan, J. Y., Wong, D. F., Joubert, L., and Chan, C. L. (2008), “The protective function of meaning of life on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Australia and Hong Kong: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2), 222-231.
- [50]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and Al-Timimi, N.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73-82.
- [51] Sandhu, D. S. and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52] Stodolska, M. and Alexandris, K. (2004), “The Role of Recreational Sport in the Adaptation of First Generatio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379-413.
- [53] Thomas, M. and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and and Social Welfare*, 123-143.
- [54] Williams, C. L. and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 632-641.
- [55] Yang, Y.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9, 59-71.
- [56] Zhang, H. (200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ultural accommodation stress among the Chinese students in Seoul”, adapting to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윤 선 영 (Sun Y. Yoon)

홍익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으로 석사학위 취득 후 영국 Birmingham University에서 관광정책경영학으로 석사학위 취득,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으로 경영학박사 취득 하였다. 현재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관광이벤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관광인적자원관리, 산업전시·박람회, 관광서비스이다.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Focused on Foreign Students Majoring Tourism at Universities in Korea

Sun Y. Y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and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in Foreign students majoring tourism at universitie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250 Foreign students. Then the data and hypotheses were examin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cculturation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with university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positive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Social support is suggested to reduce the negative result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university adjustment. Findings were this study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university adjustment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also, acculturation stress, university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variable of institutional attach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university should develop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 based on cultural difference and more studies are need to identify additional different factors that affect acculturative stress as well as to develop students intervention program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Keywords: Acculturation Stress, University Adjustment, Social Support

*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Tourism Event Management, Professor, ysy222@kyonggi.ac.kr